

“어울림과 나눔·소통 새 패러다임 열렸다”

천년을 기다린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개막

고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해 범보사찰 해인사와 가야산 일대에서 오는 11월6일까지 열리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지난 23일 개막했다. 개막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펼쳐진 행위예술가 강만홍 교수의 창작 퍼포먼스와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뮤지컬 공연, 대장경 이운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진행됐다. 특히 개막행사에 앞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중인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판〈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판과 고려 각판(국보 206호) ‘화엄경 변상도’ 총 2점의 진본이 주행사장인 대장경 천년관으로 이운됐다.

고려대장경판이 전시되는 장소는 대장경 천년관 2층에 마련된 ‘대장경 보존과학실’로, 대장경 천년 보관의 비밀을 간직한 해인사 장경판전의 건축 구조와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고려대장경판 진본이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반출되거나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해인사는 고려대장경과 장경판전 보존을 위해 외부공개할 엄격히 차단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계문화축전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을 위해 ‘장경각 환경조건과 최대한 가깝게 맞춘’ 보존과학실을 결정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개막식은 법전 중정예하를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해충스님, 원로회의 수석부회장 밀운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김광식 국무총리,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세르지오 머류괴 주한 이탈리아 대사 등 17개국 32명의 주한외교대사 부부와 중국, 일본 등 불교권 국가 사절단, 제경도민회장단 50여 명이 참석해

법전 중정예하 등 1500명 참석
11월 6일까지 45일간 이어져

기념우표 발행



대장경 조성 천년을 기념한 우표가 발행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 본부는 지난 23일 초조대장경 인쇄본인 〈유가사지론〉15권과 〈어제비장전〉도안을 담은 기념우표(사진)를 발행했다. 기념우표는 김소정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100만장이 발행됐으며, 4장이 한집로 구성돼 있다. 안직수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 세번째)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을 면담했다.

7대 종단 지도자 첫 방북...김영남 위원장 면담

“남북협력 위해 종교인 정기모임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지난 21일 3박4일 일정으로 방북길에 오른 가운데, 평양에서 만난 남북 종교인들이 정기모임을 통해 통일을 조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남북 종교인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모임’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23일 오후12시 현재)

남북 종교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측과 남측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 모임을 갖고 통일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측 7대 종단 지도

자들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7대 종단 지도자가 한꺼번에 북한을 방문해 북측 종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남북교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차원에서 이번 방북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 21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 종단 대표들은 북측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힘을 모아 인도적 지

원을 위해 노력해 왔고,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방북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7대 종단 지도자 방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회 문화 분야가 경직된 대북관계의 물꼬를 트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며 “평양 방문을 계기로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이 첫 방북인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오래 기다림 끝에 하늘이 열어준 소중한 기회라 확신한다”고 말

했다.

7대 종단 지도자는 개인 방문을 포함해 4번째 방북 길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최근덕 성균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등이다. 7대 종단 대표와 실무자 등 24명은 지난 21일 출국해 중국 선양을 거쳐 같은 날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 귀국은 24일.

인 천 =홍 다 영 기자
hong12@bulgyo.com

봉암사 인근 광산 허가 ‘물의’

조계종·사찰, 즉각 종단 촉구

국내 대표적인 사찰보전림을 보유하고 있는 문경 봉암사 인근에 광산 사용허가가 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19일 산림청에 광산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허가가 난 곳은 지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에 걸쳐 채광사업이 진행됐다가 지역주민과 봉암사의 반대로 채광사업이 전면 중단된 인근 지역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봉암사까지는 약 4.5km떨어져 있어 경내와 인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 완충지역

이어서 훼손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3-51번지.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도기, 유리 등 제작에 필수 광물인 장석이 정부 차원에서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허가했다. 또 사업면적을 사업주가 10만8163㎡에서 4043㎡로 축소하고 채광방법을 굴진채광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2016년 2월28일까지 개발을 허가했다.

조계종은 이날 발송한 공문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

호구역과 주변지역 광산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경 완장리 광산허가 즉각 취소, 일방적 허가 따른 공식사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변 국유림 추가 지정, 광산 개발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산림청이 지난 7월6일 과거부터 백두대간 훼손의 초점지역이었던 원경광업소 일대에 다시금 광산허가를 내 주었다”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동북산지관리과 주무관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절차상에서 주민과 사전에 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알림

QR코드로 만나는 불교신문 뉴스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신문은 주요 뉴스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불교신문 인기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산과 공존』 기조, 남북을 하나로 잇다



『마음의 고개에 이르면 평화의 꽃 피어난다』

동화사 조실 제3대스님 美 뉴욕서 평화법회



승복 색깔의 비바람 찾아 떠나고 싶었다

시인 도종환의 '내 문학과 불교'

결의문

西山大祭 國家祭享 復元 促求 決議文

불교는 이 땅에 전래된 이후 겨레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워왔습니 다. 또한 나라에 시련이 닥쳤을 때 생명존중사상과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국민극복에 앞장서 호국(護國)과 구민(救民)의 활로를 개척해 왔습니 다. 불교는 실로 우리민족의 정신 문화의 토양이며 숨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전래 후 1,000여 년이 지나 설립된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정치이데올로기로 한 절대주의 국가로서, 유교주의의 독점적 권력기반 속에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불교사상과 승려들의 공헌이 왜곡되거나 무시되고 유실되어 왔습니 다.

이러한 억울한 시대에도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민족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중생구제와 호국애민(護國愛民)의 사상으로 의연히 떨쳐 일어난 서산대사의 행보는 그러므로 더욱 위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위난을 막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애쓰신 서산대사의 업적과 역사적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사께서는 선조의 요청에 부응하여 ‘팔도선교도총섭(八道禪敎都總攝)’으로 임명되시어 전국의 의승(義僧)을 필기케 하였고, 명나라 군사와 연합해 평양성과 개성을 탈환하고 정예화된 800명의 승군(僧軍)으로 국가의 상징인 선조의 어가를 호위해 도성으로 들어와 국권을 회복케 한 국가와 민족 수호의 위인입니다.

둘째, 임진왜란기 전국 의승군의 필기는 서산대사로부터 비롯되었던 바, 사명, 영규, 처영, 의엄, 첨매, 경현, 법견, 창기 등 불세출의 의승장들이 모두 서산대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셋째, 서산대사를 비롯한 의승군의 국난타개의 공헌으로 전시(戰時) 뿐 아니라 전후(戰後)에도 조정과 나라 전체에 승가의 위상이 드높여지고 조선후기 불사의 중흥이 크게 진작되었

습니 다. 또한 의승군이 수행승단의 체제를 유지하며 상설조직화 함으로써 조선후기 불교 승단의 지속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 다.

이 같은 서산대사의 위업은 일찍이 당대에도 인정을 받아 서산대제(西山大祭)는 조선 선조 때부터 춘추(春秋)로 제향이 모셔졌으며, 정조 때에는 해남 대흥사 내에 표충사(表忠祠)를, 묘향산 보현사 내에 수충사(肅忠祠)라는 사당을 짓고 국가에서 봄·가을로 제향을 모셔 그 행사가 구한말까지 이어져 왔습니 다.

그러나 서산대제의 국가제향은 일본에 국권을 유린당한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지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국권회복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통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이제 서산대사의 대제는 국가봉행의 제향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진왜란에서 공헌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 현충사(顯忠祠)가 현재 문화재청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서산대사의 사당인 해남 대흥사의 표충사와 묘향산 보현사의 수충사는 국가봉행 제향이 일제 때 폐지된 이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산대사의 유의처(遺意處)인 해남 대흥사 내의 표충사는 문자 그대로 유하지(遺墟地)가 되고 말았습니 다.

둘째, 임진왜란에서 승군장으로 활약한 사명·영규대사는 서산대사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밀양의 표충사에서는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서산대사와 영규대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승가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통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군사부일제’의 정신을 만드는 조선시대 유가의 전통 덕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에 국권을 타개한 의승군의 총수이자 총지휘자로서 누구보다도 그 공헌이 큰 서산대사의 대제는 당연히 국가적 행사로서 봉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물론 복원의 주체는 한국 불교계 전체이며, 그 중심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서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구국의 훌륭한 지도자인 서산대제의 공적을 높이 선양하여 후세에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사업”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마땅히 인지도고, 이 사업이 하루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대사께서 남기신 동체대비 호국애민의 숭고한 전통은 대사의 의발과 교지가 모셔져 있는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흥사는 대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우리 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외침 속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한 몸을 불사르신 의승들을 위한 충훈각(忠愍閣) 건립 및 천도위령제(薦度慰靈祭) 봉행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정부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하여 해남 대흥사에서 개최되는 “서산대제 국가제향 봉행사업”이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위 사업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줄 것을 중앙종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2555(2011)년 9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